

보성군, 지역 소멸 위기 ‘사람 돌아오는 도시’ 실현 박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 점검
청년 인구 유입·정주기반 확충 ‘집중’
김철우 군수 “군민 체감 성과 연결”

보성군이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청년 유입과 정주 기반 확충을 핵심 축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보성’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읍 봉산리와 회천면 울포리, 제암산자연휴양림 일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공정을 확인을 넘어 각 사업이 청년 정착, 관광 활성화, 문화 기반 조성 등 분야별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이 현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보성군은 청년과 관광객 모두가 ‘머무는 지역’



보성군은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벌교북합문화센터 및 센터 내 돌봄센터 조감도.



보성군은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벌교북합문화센터 및 센터 내 돌봄센터 조감도.



보성군은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벌교북합문화센터 및 센터 내 돌봄센터 조감도.

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회천면 울포해변 일원의 ‘보성 프로나드 조성사업’은 지역 해안선을 따라 문화공간과 청년 창업 거리를 조성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오는 9월 정식 개통을 앞둔 전남 남해선

(목포-보성) KTX-이음으로 보성과 수도권 및 남해안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관광 인프라 확장과 직접 맞물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성을 봉산리와 회천면 영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 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야간 경관과 캠핑장을 중심으로 계절·시간대와 관계

없는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녹차마을 위케이션 조성사업’도 7월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휴식과 업무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이 사업은 생활인구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보성군만의 자연 자원을 활

용한 차별화된 위케이션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돌봄 정책 역시 탄탄히 설계돼 있다.

벌교읍 회정리에 추진 중인 ‘청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사업’은 벌교북합문화센터 내에 공공형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북카페, 조리실습실, 체육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사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2년부터 총 33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정주 여건 개선, 문화 기반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임병연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9일 여수시 돌산읍 송도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조피볼락 방류 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여수시 제공>

정기명 여수시장 “어업인 고수온 피해 최소화 총력”

양식장 방문...대응 상황 현장 점검
조피볼락 방류·조기출하 등 추진

여수시가 최근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9일 돌산읍 송도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자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

가 발령되고 관내 해역 전반에 주의보가 확대됨에 따라 양식어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피볼락 긴급 방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 시장은 양식어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피볼락 16만 마 방류 작업에 참여해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힘을 보탰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방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여수시는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긴급 방류 등 사전 대응 필요성을 적극 건의, 정부의 적극 수용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방류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화정면·돌산읍 해역에서 긴급 방류를 통해 조피볼락 42만 마를 방류를 완료했으며, 30일에 화정면 해역에 16만 마, 이후 돌산읍 해역에 48만 마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또 사육밀도 조절, 조기출하, 사전 분방 등 다양한 대응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시, 소비쿠폰 주말·야간 창구 ‘호응’

지급률 86.2%...찾아가는 서비스도

광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주 차를 맞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말·야간 특별 창구 운영에 나서고 있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읍·면·동별로 평일 야간과 주말에 탄력적으로 소비쿠폰 신청·지급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는 퇴근 후 방문이 필요한 직장인, 평일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 다양한 시민층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운영은 지난 26·27일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다. 광양읍을 비롯해 옥룡면, 진월면, 광영동 등지에서는 특별 창구를 운영해 총 1천433명의 신청을 접수했다.

봉강면은 동사무소 창구 운영 외에도 직원 4명이 각 마을을 순회하며 신청서를 받았고, 다

압면은 같은 기간 오전 시간대와 28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을 돌며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탄력적 운영과 맞춤형 현장 대응에 힘입어 29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중 약 86.2%에 해당하는 13만3천185명의 시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신속한 신청과 지급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창구 운영 시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광양=양홍렬 기자

치유도시 순천, ‘설랑계’ 마을여행주간 개막

옥천·동천·와온·순천만서 힐링 체험
정원 산책·골목 투어·땃밭 가꾸기 등

순천시가 마을에 머물며 화북과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2025 순천마을여행주간’을 첫 개최한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여행주간은 순천시가 자체 개발한 체류형 치유여행 브랜드 ‘설랑계(Shilangge)’를 중심으로, 옥천·동천·와온·순천만 4개 권역에서 다양한 마을 체험과 힐링 콘텐츠가 진행된다.

8월은 프리오픈, 9·10월은 본격 시즌오픈으로 운영된다.

순천은 더딘 시간과 진한 자연이 공존하는 도

시다. 동천의 물소리, 순천만 갈대숲의 바람, 선암사와 송광사의 고요한 풍경,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과 완대가 여행의 본질을 되묻는다.

이번 마을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머무느냐’가 먼저다. 순천의 ‘설랑계(shilangge)’는 그런 철학에서 시작됐다.

우리말 ‘쉬다’와 독일어 ‘Lange(오래)’가 결합된 이 브랜드는 “오래 쉬어가도 좋은 마을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순천마을여행주간은 ‘나의 첫 번째 마을 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개 권역의 마을속소에서 운영되며 정원 산책, 골목 투어, 야생차 만들기, 공방 클래스, 땃밭 가꾸기, 마을 식사 등 20

여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예약은 설랑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체류 기간, 권역, 프로그램은 여행자가 직접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숙소가 아닌 ‘마을’에 머무른다. 호스트가 직접 보여주는 차 한 잔, 골목 끝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공방, 땃밭을 함께 가꾸며 마주보는 식탁까지 이 모든 순간이 관광이 아닌 관계로 채워진다.

이번 마을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행사로 8월30일 오후 4시 ‘마을런 판·워크 페스티벌(Fun-Walk Festival)’이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치유도시 순천’의 비전 아래 이번 프로그램을 관광지를 소비하는 여행이 아닌, 사람과 공간, 감정이 연결되는 도시형 힐링여행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장성, 왕우렁이 집중 수거 ‘한창’

제조 작업 후 회수...생태계 교란 방지

장성군은 31일 “벼 재배농가에 제조용으로 공급했던 왕우렁이를 8월 말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앞선 6월까지 3천90ha 규모 논에 왕우렁이 368t 물량을 공급했다. 친환경 벼 농가에는 사업비 전액을, 일반벼 재배 농가는 90%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을 낮췄다.

식성력이 강한 왕우렁이를 논에 풀어 놓으면 잡풀을 먹어치워 제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화학 제조제를 쓰지 않아도 돼 농가 호응이 높지만, 제조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해야 생태계 교

란을 막을 수 있다.

겨우내 동면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어린 모를 갹아먹는 등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성군은 중간·완전 물떼기 기간인 8월까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로 하고 용배수로, 농경지 등에서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읍·면 공직자들도 현장에 나가 일손을 거드는 중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8월이 왕우렁이를 완전히 수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집중 수거작업에 적극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061-390-8412)으로 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 수북파출소,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활동

고용주 안내문 전달·애로사항 청취

담양경찰서 수북파출소는 31일 ‘삼북더위 속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수북파출소는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지역 농민들을 위로하고, 폭염 속 하우스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에게 안내문을 전달했다.

<사진>

또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팔기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폭염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를 피해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북파출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폭염 장기화 대응’ 긴급 점검

영농·건설 현장 등 집중 관리

고흥군이 연이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한 ‘폭염 대처상황 관계 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대평양 고기잡과 티베트 고기잡의 영향으로 ‘열돔 현상’이 지속되고 지난 27일 기준 전국에서 누적 온열질환자가 2천454명, 관내에서도 5명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15개 부서장이 참석해 ▲영농작업자 보호 방안 ▲건설현장·야외작업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대책 ▲군 직접 고용인력

관리 방안 ▲해수욕장 및 관광지 안전관리 대책 ▲농업·축산·어업 분야 폭염 피해 예방 대책 등 분야별 대응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관내 온열질환자 5명 중 4명이 영농작업 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군은 폭염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 야외 영농작업 중지를 계도하고,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야외작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마을별 담당 공무원,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마을 이장 등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현진 기자